PDF 체크리스트

눈치 보여서 연차 못 씁니다, 그 말에 대한 현실적인 답

연차촉진제도 절차와 눈치 안 보고 연차 쓰는 대처법 체크리스트

1. 회사 절차 이행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	회사가 절차를 지킨 경우	회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절차 이행	1차 통보(6개월 전), 2차 지정 통보(2개월 전)	별도 통보 절차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조치	지정된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합니다	특별한 조치 없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61조 기준, 2026년 8월 현재 유효한 법정 기준입니다.

2. 눈치 안 보고 연차 쓰는 셀프 체크리스트

- [ ] 회사가 1차 사용 촉진 통보(만료 6개월 전)를 문서로 보냈는지 확인했나요?
- [ ] 촉진 통보에 회신하지 않았다면, 2차 시기 지정 통보(만료 2개월 전)가 왔는지 확인했나요?
- [ ] 두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그대로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 [ ] 연차 사용 계획을 미리, 문서(메신저 포함)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눈치와 별개로 기록이 남습니다.
- [ ] 연차 사용 시기를 팀 캘린더에 공유해서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세요.
- [ ] 상사에게 연차 사용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3. 참고 사항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가 연차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눈치가 보이는 건 문화의 문제이지, 연차를 못 쓸 법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 BIZFORMS 비즈폼 직장인 업무맵